

(지역주민·남구청)

“유엔공원 경관지구 해제는 민·관의 유기적 팀워크 작품”

주민대표 “남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중재자 역할로 해제 물꼬”

경관지구 내 학교·공원·문화시설 있어 유흥시설 유입·난개발 불가는

“주민들이 희망은 갖고 있었지만 경관지구 해제가 이렇게 빨리 해결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엔기념공원 경관지구 해제추진위원회 안중덕 대연3동 주민대표는 “경관지구 해제는 매우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유엔기념공원 일원의 경관지구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태곤 대연1동 주민대표는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주민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번 경관지구 해제는 남구의 남다른 노력과 적극적 주민

소통 그리고 현장행정이 있어 가능 했다.

'보호와 방지' 경관지구의 이중성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는 지난 10월 23일 제52차 정기총회에서 남구와 부산시가 요청한 유엔기념공원 주변 경관지구 완화에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로써 대연1, 3, 4동과 용당동 일부 27만㎡ 내에 거주하는 1500세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관지구가 해제되면 이 지역 내 건축물은 기존 4층(12m)에서 8층(24m)~11층(33m)으로 높아져 그동안 손대지 못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재산권 행사가 크게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0년 전 지정된 경관지구는 유엔기념공원 일대의 경관을 유지한 반면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막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대연1동 청자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상 4층의 이 아파트

는 1978년 12월말 준공돼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침수와 누수, 콘크리트 부식 등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4층 이상 높이지 못하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활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민원은 폭증했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2021년 경관지구 주변 대연1, 3, 4동과 용당동 주민들이 경관지구 해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 탄원서를 받는 등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민관의 유기적 팀워크

경관지구 해제 논의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히 2023년 남구가 추진한 ‘남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경관지구 해제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주민대표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용역 결과 대연1동은 11층(33m), 대연3·4동·용당동은 8층(24m)까지 고도를 높여도 유엔기념공원의 경내가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후 남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 남구는 올해 국제관리위원회 정기총회를 앞둔 7~9월 3개월간 10여 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자료를 보완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조건부 동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태곤 대연1동 주민대표는 부산시도 노력을 했지만, 이들을 중재하고 대응 논리를 찾아내는 등 실무적인 일은 사실상 남구가 다 했다”고 말했다.

경관지구 난개발 걱정은 ‘기우’

고도제한 완화로 유엔기념공원 일대가 아파트숲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유엔기념공원 경계는 수목원과 평화공원, 유엔조각공원 등 자연녹지가 완충지대로 조성되어 있고 4차선 도로가 인접해 고도제한이 완화돼도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경관지구 안에는 초·중학교와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등의 공공시설이 있어 난개발이나 유흥시설 등이 원천적으로 유입될 수 없고 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은 부지가 협소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어렵다.

건설과 ☎607-4732



남구, 유엔공원 경관지구 해제 용역 추진

2026년 3월 용역 착수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고도제한 완화를 승인함에 따라 남구는 후속 조치로 ‘유엔기념공원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비한다.

이번 용역은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건축물 용도(주거·근린생활시설) 제한 ▷

유흥시설·내온사인·광고탑 등 금지 검토 ▷ 유엔기념공원관리처·부산시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추진 ▷ 각종 영향평가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검토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남구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2026년 3월 용역에 착수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각종 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10월 결과를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설과 ☎607-4732

사진으로 보는 구정 소식



어린이 악취·유인 예방 캠페인 남구청·남부경찰서·남부교육지원청 등 50여명이 참여해 지난 11월 20일 ‘어린이 악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합동 산불진화 훈련 산불 발생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남구 관내 유관기관합동 산불 진화 훈련이 지난 11월 20일 대부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훈련에 남구를 포함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 해군작전사령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석준 명예구청장 위촉 이석준 2025년 제5대 명예구청장이 지난 11월 26일 위촉됐다. 올해 부산시 지방세 우수납세자 표창을 받은 이 명예구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와 함께 CCTV통합관제센터 등 주요시설을 현장방문했다.



유엔남구 육아아빠단 해단식 제2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이 지난 11월 30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4세부터 6세 미만 자녀를 둔 아빠들로 구성된 유엔남구 육아아빠단은 6개월간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육아 활동에 참여했다.

부산남구문화재단 활동 본격 시작

출범 이후 첫 행사로 ‘남구 문화 데모데이’ 운영
주민·예술인 등 민간 주도형 문화의제·정책 발굴

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구본호)이 출범 첫 행사로 남구의 문화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을 만들기 위한 라운데이블 ‘2025 남구 문화 데모데이’를 운영한다.

데모데이(Demoday)는 스타트업 기업의 홍보 및 투자를 위한 행사를 의미하는데 남구 문화 데

모데이는 관내 주민·청년·예술인·문화공간 운영자·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남구 문화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의제·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11월 29일과 12월 13일(토) 2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로 ‘문화로 미래를 여는 남

구’와 ‘문화로 일상을 바꾸는 남구’를 주제로 사전 신청자 80명이 경성·부경대 대학가의 카페 위드에서 모여 진행된다. 발굴 의제 10건 가운데 핵심 아이디어 2건을 발굴해 사업 연계와 문화재단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남구의 문화 기반 확장과 주민 주도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부산남구문화재단은 지난 10월 3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남구문화재단 ☎608-1541

생활밀착형 문화사업 ‘남구싶은 우리동네’

부산남구문화재단 12월 20일까지 무료 운영

부산남구문화재단은 남구 지역 문화자원(예술단체, 공간 등)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향유 사업 ‘2025 남구싶은 우리동네’를 11월 15일~12월 20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남구싶은 작업실(프로그램 20회)’과 ‘남구싶은 공연(4회)’으로 진행된다.

남구싶은 작업실은 남구 곳곳의 카페, 공방, 독립서점과 같은 생활문화공간에서 진행되며 원데이 클래스, 북토크, 그림책 세미나 등 일상 속 다채로운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남구

각 권역별로 생활문화공간을 연계·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권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구싶은 공연은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배달형 공연과 2026년부터 부산남구문화재단에서 운영 예정인 대동굴문화센터 기획 공연으로 추진된다. 출연진은 남구에서 활동 중인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링크트리(https://linktr.ee/inc_bncf)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획 공연은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현장 입장도 병행한다. 부산남구문화재단 ☎608-1534~5

■ 남구싶은 작업실 (무료, 중복신청 가능)

운영내용	일시	장소
나만의 향수 만들기	<1회차> 11. 15. (토) 14:00~16:00	마이페이보릿센터
	<2회차> 11. 16. (일) 14:00~16:00	
	<3회차> 11. 22. (토) 14:00~16:00	
	<3회차> 11. 23. (일) 14:00~16:00	
차 입문자 클래스	<1회차> 11. 22. (토) 14:00~16:00	그르니에티아틀리에
	<2회차> 11. 29. (토) 14:00~16:00	
물레볼 만들기	<1회차> 11. 23. (일) 14:00~15:30	라온세라
	<2회차> 11. 29. (토) 14:00~15:30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1회차> 11. 26. (수) 14:00~15:30	대동굴문화센터 제1강의실
자개키링 만들기	<2회차> 12. 6. (토) 16:00~17:30	
나무 스피커 만들기	<1회차> 11. 29. (토) 17:10~20:00	비우드
나무 도마 만들기	<2회차> 12. 6. (토) 17:10~20:00	목공방
고체 올인원바 만들기	<1회차> 12. 3. (수) 18:30~20:30	비누밥
아로마 핸드크림 만들기	<2회차> 12. 5. (금) 18:30~20:30	
가족 카드지갑 만들기	<1회차> 12. 7. (일) 14:00~16:00	그레비티 가족공방
	<2회차> 12. 12. (금) 19:00~21:00	
캐주얼 클러치 만들기	<1회차> 12. 1. (월) 12:00~14:00	레더모어 스튜디오
	<2회차> 12. 2. (화) 19:00~21:00	
그림책 세미나&그림책 만들기 ‘남구에서 기록하는 책 한권-선으로 그리는 나의 책갈피’	12. 13. (토) 15:00~17:00	진지한책방 cafe
북토크 : 은희경 작가님 『또 못 버린 물건들』, 『새의 선물』	12. 14. (일) 15:00~17:00	미우서재

■ 남구싶은 공연 (무료)

운영내용	일시	장소	모집대상
11월 남구싶은 기획 공연 (미술과 퓨전국악)	11. 30. (일) 15:00~16:30	대동굴문화센터 공연장	남구 구민 140명
찾아가는 공연 (신나는 퓨전 한바탕)	12. 3. (수) 14:00~16:00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자
찾아가는 공연 (미술과 판소리)	12. 9. (화) 14:00~16:00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이용자
12월 남구싶은 기획 공연 (가족연극과 재즈탱고)	12. 20. (토) 15:00~16:30	대동굴문화센터 공연장	남구 구민 140명

* 프로그램 참여는 링크트리(https://linktr.ee/inc_bncf)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



제1회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마쳐

전국 61개팀 도전… 부경대 최민석씨 최우수상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부산 남구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

회’ 본선심사가 지난 11월 8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9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가 모집에 61

개팀이 예선 심사를 거쳤다. 이날 본선 심사에는 부산 2개팀, 수도권 4개팀, 기타 2개팀이 참가했다.

최우수상은 기업의 수요예측과 참여를 확장하는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한 부경대학교 소속 최민석씨가 차지해 상급 200만원을 받았다. 또 ‘해외출국자용 셀프 간편 개통 데이터 로밍 마켓 플레이스’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서지안씨

가 우수상에 선정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인재현씨와 이지선씨가 장려상에 선정돼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상금 외에도 수상자들에게는 정부지원사업에 대비해 전문가 컨설팅과 남구청년창조발전소 창업시설 입주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일자리경제과 ☎607-3664